

광주, 민주 단체장·의회 싹쓸이... 전남, 평화·무소속 돌풍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 송갑석 국회의원 당선인 서삼석 국회의원 당선인 장석웅 도교육감 당선인

이용섭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압승 송갑석·서삼석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 전남도교육감 전교조 출신 장석웅 파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가 광주시장에, 같은 당 김영록 후보가 전남지사에 각각 당선됐다. 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광주·전남 2곳의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광주 서구갑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가,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같은 당 서삼석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하지만,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장휘구 후보와 이정선 후보가 이날 밤 11시30분 현재 개표율 26.41%속에 2%포인트 차이로 양 후보가 혼전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장석웅 후보가 당선 유력시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시장부터 광역·기

초의원까지 사실상 '싹쓸이'를 한 반면 전남에서는 10개 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기초의회 선거에서 평화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14일 새벽 1시 현재 (개표율 41.04%) 84.06% 득표율로 정의당 나경채(6.04%) 후보와 바른미래당 전덕영(5.23%), 민중당 윤민호(4.65%)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이 후보는 세 번째 도전만에 광주시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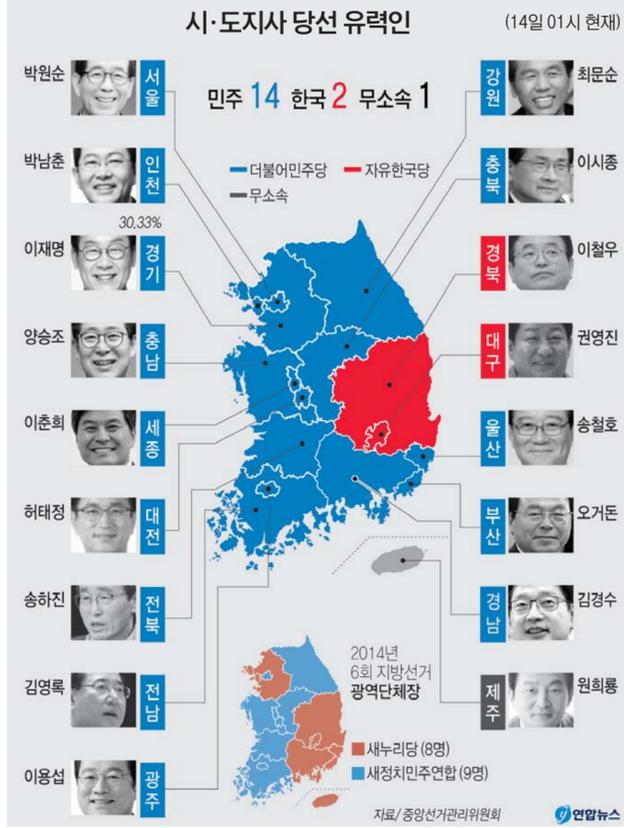
김영록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도 같은 시각 현재(개표율 57.63%) 득표율 76.34%를 기록하며 2위인 평화당 민영삼 후보(11.10%)와 민중당 이성수(5.11%), 바

른미래당 박대호(4.04%), 정의당 노형태(3.39%)를 가깝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뒤 본선에서는 큰 승부처없이 무난하게 당선됐다.

이 후보와 김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각각 당선된 것은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전남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지방선거 표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광주와 전남 광역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를 비롯해 광주 자치단체장 5곳을 모두 석권하고 광주지역 광역·기초의원까지 '싹쓸이' 할 것으로 보이면서 광주에서 확실한 압승이 예상된다.

반면 전남에서는 격전지로 꼽혔던 일부 지역에서 평화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후보와의 접전을 기록하며 2위인 평화당 민영삼 후보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들 간 치



열한 접전이 벌어지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14일 새벽 1시 현재 42%의 개표율이 이뤄진 가운데 현재 장휘구 후보와 이정선 후보가 박빙의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어, 당선을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전남도 교육감 선거는 개표가 57.38% 이뤄진 가운데 장석웅 후보가 38.0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고석규(33.50%) 후보와 오인성(28.43%) 후보의 추격을 받고 있지만,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충성 없는 전쟁' 2018 러시아월드컵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러시아 월드컵이 15일 자정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 열리는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막전과 함께 32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18면>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전차 군단' 독일을 필두로 치열한 지역 예선을 통과한 32개국을 내달 16일까지 축구 전쟁을 벌인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빛나는 한국은 신태용 감독의 지휘 아래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8만 명의 16강 진출에 도전한다. 선수들의 줄부상이라는 약재를 겪은 한국은 오스트리아 레오강 전지훈련을 끝내고 지난 12일 '결전의 땅'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베이스캠프에 짐을 풀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7위인 한국은 F조에서 힘난한 여정에 나선다. FIFA 랭킹 1위인 독일을 필두로 '북중미 강호' 멕시코(15위), '유럽의 강호' 스웨덴(24위)이 F조에서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18일 오후 9시 스웨덴과의 예선 첫 경기를 통해서 '통쾌한 반란'을 꿈꾸는 한국은 24일 자정 멕시코, 27일 오후 11시 독일과 경기를 갖고 16강 진출을 타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6·13 민심

- 1 시·도지사·국회의원·교육감 당선인
- 2 광주시장·전남지사 당선인의 과제
- 3 광주 서갑·무안·신안·영암 재선거 결과
- 4 전남 교육감 선거와 과제
- 5 민주 광주 시장·구청장·의회 싹쓸이
- 6 기초단체장 당선자·유력자 얼굴
- 7 격전지·화제의 당선인들

트럼프 "북미협상 중 한미연합훈련 중단" 재확인

靑 "대화 진전위해 방안 강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과 관련해 "우리가 북한과 선의(in good faith)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0, 11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폭스뉴스 유명 앵커 선 헤티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북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즉각적으로 (비핵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 하며 그(김정은)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며 "그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협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위 계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면서도 북미 간 대화 기간에는 대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8년 최고의 쌀로 선정된 전남 10대 브랜드쌀

대상

한눈에반한쌀

해남축전농협

최우수상

대수왕은쌀

담양금성농협

우수상

나비쌀

함평군농협

우수상

황토랑쌀

무안군농협군

우수상

수호천사건강미

고흥홍양농협

장려상

프리미엄호평

강진군농협

장려상

세계절이사는집

영광군농협

장려상

녹차미인쌀

보성군농협

장려상

달마지쌀골드

영암군농협

장려상

갯벌예문쌀

북신안농협

맛있는 전남쌀을

남도장터 www.jnmall.kr

에서 구입하세요

전라남도 JeollaNamdo